

An Inquiry into Children's Reading in Primary School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 시리즈 5>

國民學校 어린이의 讀書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어린이회관 회원을 中心으로—

丁 海 晟

弘益大圖書館司書主任

編輯者註: 本論文은 1972년도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司書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的 要約이다.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다량으로 생산 보급하고 이에 따라 마침내 학교에서 교과서만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방법에 회의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박식하고 지적이며 활동적인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게 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사회에 있어서 교과서중심, 강의중심주의가 배격되고 시청각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독서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도서관을 통한 독서지도 및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되어야 하는 오늘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는 자라나는 새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교육수단이며 불안정한 독서생활을 전전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생활의 장인 학교시설중 아동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할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불과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동들로 하여금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받아들이고 새로이 생산되어 나오는 최신의 정보를 소화 흡수하여 완전한 인격을 구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에서의 독서지도는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독서지도란 단원이 국어과에 약간 소개될 뿐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안취해지고 또 그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지도를 통하여 국민학교 어린

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독서경험을 토대로해서 올바른 독서방향, 도서의 선택법, 독후처리법, 독서시간과 장소, 학습을 위한 독서 여가선용을 위한 독서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必要性에 따라 어린이들의 독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서지도는 독서력을 기르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고 어린이의 인격적인 적응을 독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독서조상은 이 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서지도의 보다 나은 방향 모색을 위한 한시도라고 믿는다.

B.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바른 독서생활을 위하여 그들의 독서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들이 학교생활 이외의 여가시간을 利用하여 특수분야 즉 예능 체육 과학분야의 지도를 받는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독서경향의 차이점을 발견 검토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갖는다.

1. 어린이들의 독서흥미, 독서활동, 독서경험, 독서환경 등을 조상 파악한다.
2. 어린이들이 특수분야의 지도를 받음에 따라 그들의 독서경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규명해 본다.

C. 연구의 한계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어린이회관의 회원중 4,5,6학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실태를 조사 분석 파악하는데 국한하였으며 독서지도의 입장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II. 本 論

A. 독서흥미

1. 독서경향

부문별로 읽혀진 도서의 권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독서흥미의 경향 (단위=%)

부분별	남여별	
	남	여
위인이야기	18.9	15.1
세계명작이야기	10.3	26.1
모험·탐험이야기	20.0	2.4
과학이야기	3.6	0.9
동화	13.3	20.5
우화·신화이야기	3.6	3.2
교양도서	3.6	3.2
옛날이야기(고전이야기)	8.5	12.6
전쟁이야기	3.6	—
순정소설	1.2	15.1
공상이야기	7.3	0.9
역사이야기	6.1	—
계	100	100

<표1>를 어린이가 많이 읽은 순위로 보면 <표2>와 같다.

<표 2> 흥미있게 읽은 도서순위

순위	성별 분야	남		여	
		부	문 %	부	문 %
1 위	모험·탐험이야기	20.0	세계명작이야기	26.1	
2 위	위인이야기	18.9	동화	20.5	
3 위	동화	13.3	순정소설	15.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험적이고 스틸이 있는 탐험 이야기 가 가장 많이 읽히고 있으며 유명한 인물의 전기도 흥미있게 읽히고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알프스의 소녀」 「집없는 천사」 등의 가정적이고 은화한 내용의 세계명작을 많이 읽고 순정적인 주제를 가진 도서를 많이 읽는 것을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노벨」은 그의 조사에서 “독서경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에 따라 독서흥미 경향에 변화를 주며……남자의 경우 활극적 요소, 실화적 모험담 전기, 과학 분야를, 여자의 경우 감상적 소설을 많이 읽는다” 하였으며 小河内芳子도 독서흥미를 “남자는 영웅적인 행동이랑 모험 「서스펜스」가 많은 것을 읽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학지식이나 역사에도 관심을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여자는 왕이나 왕비가 되는 동화, 자기들과 같은 또래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와 가정적인 것에 강한 독서흥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으니 독서흥미의 경향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전이야기(옛날이야기)분야가 남학생의 경우 4위의 흥미도를

나타내는 것은 「고전읽기 캠페인」에 따른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표1>에서와 같이 독서의 경향이 몇가지 侧面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각 학교에서 아동들이 폭넓은 인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걸친 선정 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의도적인 독서지도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2. 독서희망

어린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살펴 보면 어린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은 위인의 전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삼학생이 26.4% 여학생이 28.4%로 나타나 있다. 그 다음이 남학생의 경우 모험·탐험이야기가 17.1%이고 여학생의 경우 세계명작이야기가 20.2%로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과학이야기와 공상이야기가 많은 範圍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여학생의 경우 순정소설과 동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 상에서 볼 때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책의 분야와 읽고 싶은 책의 분야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인전기가 가장 많이 읽고 싶어하는 분야로 나타났것을 인식할 수 있다.

3. 독서동기

어린이들이 읽은 책을 왜 읽게 되었는가를 물어 본 결과 어린이들은 어떤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여 어린이 모두가 책 이름이 재미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이 각각 33.3%와 42.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보고한 내용과도 동일한 경향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이 읽으라고해서 읽는다는 것이 22.2%이고 여학생은 3위인 18.1%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밝은 전망을 내다 볼 수 있겠다. 또한 우연히 책을 얻었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됐다는 독서동기는 남자의 경우 21.1% 여자의 경우 29.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 독서목적

아동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질문을 던진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남·여 모두 “도움이 되어서”로 41.1%와 39.3%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이 되지않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락적인 독서 즉 재미가 있어서 책을 읽는 비율도 교양적 독서에 못지 않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독서를 하는 비율은 남자 8.9% 여자

1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식의 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겠다.

### B. 讀書活動

#### 1. 독서시간

어린이들이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질문을 한 결과 남자의 경우 밤이 가장 많은 51.1%이고 여자의 경우 오후로 54.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루 중 일 하는 일들을 時間別로 나누어 본 결과 책을 읽는데 소모하는 시간은 남, 여 모두 30분부터 1시간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하루 중 책상에 앉아서 책을 대하고 있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와 비슷하게 놀이에 같은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하루 중 책을 읽는데 소비하는 時間의 比重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자기가 한 일을 기재하는 중에 책을 읽는다고 하는 빈도수가 여자어린이는 제일 높고 남자는 놀이와 운동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운동을 했다는 여자의 경우 무용, 음악, 미술을 배우러 갔다가 높은 빈도를 보여준 것은 표집 대상이 어린이회관에서 체육과 예능분야의 지도를 받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간주되고 특히 과외공부를 했다는 문항이 남자 10위, 여자 9위로 나타난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의 폐지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어린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原因을 알아보는 질문은 책(만화포함)을 전혀 읽지 않은 어린이만 응답토록 하였기 때문에 적은 수의 응답자 뿐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계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의 응답자중 책읽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항목에 반응을 보인 것은 특수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 독서장소

어린이들이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장소는 도서관으로 남자 53.3% 여자 57.4%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집 공부방에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많을 것으로 豫見했으나, 어린이회관 각 지도분야의 지도시간이 오후 4시이후이므로 학교가 끝난 다음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도서관에서 읽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나 이도 어린이회관 도서실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학교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해 놓는다면 어린이의

독서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다.

#### 3. 도서의 입수

어린이들이 읽을 책을 어디에서 입수하는가를 살펴 보면 남녀 어린이 모두가 친구, 학교도서관, 학급문고 혹은 대본점에서 빌렸다가 가장 많은 33.3%와 42.5%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이 집에 있던 것을 읽는 경우가 26.7%와 27.9%이고 책방에서 구입을 하여 보는 것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를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C. 讀書經驗

#### 1. 독서량

어린이들이 한달에 읽은 독서량을 살펴 보면 어린이들의 만화책 독서실태는 남자 81.6%, 여자 70.5%로 남자가 여자보다 만화책을 보는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반도서의 독서경향도 남자 94.4%, 여자 91.8%로 남자가 우위에 서 있다. Hanna에 의하면 "10대 젊은이들의 독서량은 12~13세를 절정으로 1년에 50책 내지 150책을 읽는다. 여자어린이들도 대개 남자보다 더 읽는 것이며 이런 경향은 평생 계속됨이 보통이다"라고 했는데 본 조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독서를 하는 결과로 나왔다.

한편 어린이들이 1개월간 읽는 독서량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1권 내지 5권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온 반응으로 보아 평균 3권을 한달에 읽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Hanna의 이론에 따라 50~150책의 독서량을 어린이들이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년에 알맞는 필독도서 또는 선정도서를 마련하여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 2. 독서태도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태도는 책상에 앉아 읽는다가 남, 여 모두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엎드려서 읽는 경우도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독서하는 방법을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가 독서삼매경의 경지에 빠져 책속의 주인공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독후감을 어느 정도 알아 본 결과는 어린이가 남자 22.2% 여자 44.3%로 나타났고 머리에 기억해 둔다는 경우가 남자 57.8% 여자 41%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가 독후감을 쓰지 않고 있다.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은 올바른 독서방법의 하나로 책을 읽은 후 감상문을 쓰게 되면 책을 읽을 때 비교해 볼 수도 있는 비판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의도적으로 독서지도 계획을 세워 어린이들이 독후감을 쓰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하겠다.

3. 독서위생

어린이들은 대부분 위생적인 면은 등한히 하여 책을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넘기거나 킴을 칠해 넘기는 것이 남자 88.9%와 여자 77.1%로 나타났다.

D. 독서환경

1. 가정의 독서환경

어린이들에게 공부방의 유무를 알아 본 결과 혼자 공부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남자 18.9% 여자 21.3% 같이 쓰는 경우가 남자 56.6% 여자 49.2%, 따로 공부방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남자 24.5% 여자 29.8%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서, 잡지, 참고서가 아닌 도서를 10권이상 갖고 있는 가정을 조사해 본결과 반반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아동들의 독서지도를 소홀히 하는 결과이며, 책을 사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강요하는 저축에 용돈을 쓰는 경우가 남 여 모두 50%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좀 더 의도적인 독서지도가 요구된다.

2.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때 주위의 부모나 형제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나 알아 본 결과 칭찬을 하고 격려해주는 경우가 남자 33.3% 여자 34.4%로 가장 많고 무관심한 경우와 좋은 책을 보라고 지도하는 경우가 남자 22.3%로 동일한 반응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 26.2%와 23%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대도시의 어린이를 위하여 각 가정의 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을 시킨다든가 무관심한 부모들은 子女의 교육을 위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 指導分野에 따른 독서경향의 비교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인 어린이들이 특수분야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독서경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별 어린이의 독서경향을 조사한 결과 각분야에서 지도받는 어린이의 독서경향에도 흥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a) 藝能分野와 科學分野

예능분야의 어린이는 세계명작이야기, 동화, 위인 이야기, 순정소설, 옛날이야기 등의 순으로 독서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과학분야의 어린이는 모험, 탐정이야기, 공상이야기, 역사이야기, 위인이야기, 세계명작이야기의 순으로 독서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과학분야의 어린이는 공상적이고 추리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고 예능분야는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로

읽고 있는 것이다.

b) 과학분야와 체육분야

체육분야의 어린이는 위인이야기, 모험, 탐정이야기, 동화, 옛날이야기, 세계명작이야기 순으로 독서경향이 나타난 것을 보면 체육분야의 어린이는 과학분야의 어린이보다 오락적인 독서를 하는 경향이 많이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c) 예능분야와 체육분야

예능분야의 어린이와 체육분야의 어린이도 독서경향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체육분야의 어린이는 모험·탐정이야기가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예능분야 어린이는 순정소설이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III. 結 論

1. 독서흥미면

독서경향 및 희망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흥미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경향은 아동문학류에 치중하고 희망은 위인들의 생애와 사상을 적은 전기에 치중하고 있다.

독서동기 및 목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막연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독서활동면

독서시간은 주로 밤을 이용하여 30분내지 1시간 정도 읽고 있으며 독서장소로는 의외로 도서관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도서의 입수방법은 친구 도서관 대본소에서 빌려 보는 것과 집에 있는 책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3. 독서경험면

독서량은 월평균 일반도서 3권, 만화 3권을 읽고 있으며 독서태도는 책상앞에 앉아 읽으며 많은 어린이가 독후감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정독을 하고 있다.

4. 독서환경면

가정의 독서환경으로는 따로 공부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가 30% 정도이며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양이 매우 빈약하나,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있는 편이다.

5. 분야별 독서경향의 차이

과학분야를 지도받는 어린이는 공상적인 이야기를 읽는 경향이 있고 예능분야는 경서적이고 동화적인 이야기에, 체육분야의 어린이는 웅망한 장수들의 이야기 모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독서지도를 전제로 독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고찰해 본 결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 가정이三位一體가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